

# 비교코퍼스에 기반한 불한번역 문학텍스트의 언어적 특성 연구\* — 단순화와 어휘적 특성을 중심으로 —

김혜영 · 이영훈\*\* · 고경은 · 김태준 · 이은정 · 조혜란 · 최현아  
(고려대)

##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국어 비교 코퍼스를 기반으로 불한 번역문의 언어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외국에서는 코퍼스 기반의 언어학 연구에 힘입어 1990년대부터 번역 연구에서도 코퍼스 기반의 통계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개별 텍스트 중심의 기술적 연구에 치우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국내에서도 코퍼스 기반의 번역학 연구가 조

---

\* 본 논문은 공동연구의 결과로 전체 연구의 기획 및 진행 책임을 교신저자가 맡았고, 제1저자가 논문 집필을 주도하였으며, 여타 공동저자들은 연구 진행에 적극 참여하였다.

\*\* 교신저자: 이영훈.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erasme@korea.ac.kr

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정호정(2004)이 영한과 한영 병렬 코퍼스를 대상으로 번역문의 텍스트 확장과 축소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고, 이근희(2005)의 병렬 말뭉치를 활용한 번역투 연구에 이어, 최근에는 김혜영(2009a)이 대규모 국어 비교 코퍼스에 기반한 통계적 방법으로 영한 번역문의 언어적 특성을 밝히기도 했다. 코퍼스에 기반한 번역 연구는 자료 및 결과의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특히 그동안 가설로 논의되어 온 번역 보편소를 비롯하여 번역문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실증적 연구로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한 번역문 코퍼스를 구축하고 형태별 빈도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보편소 후보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단순화(simplification) 및 불한 번역문의 어휘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불한 번역문과 국어 비번역문(non-translated text) 각각 30만 어절로 구성된 형태 분석 비교 코퍼스이다. 김혜영(2009a, 2009c)의 연구 결과는 번역문이 텍스트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적 특성을 가짐을 보여주는데, 국내 출판된 불한 번역문은 문학 텍스트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불한 번역문 가운데서도 문학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국어 비번역문은 김혜영(2009a)의 100만 어절 비번역문 형태 분석 코퍼스 가운데, 30만 어절의 문학 텍스트 코퍼스를 가져온 것이다<sup>1)</sup>. 불한 번역문은 국립국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한 문학 번역문 원시 코퍼스와 고려대학교 프랑שמ작소설번역평가연구단<sup>2)</sup>에서 구축한, 프랑שמ작 단편소설의 한국어 번역문 원시 코퍼스 자료 가운데, 1990년대 이후에 번역 출판된 자료를 총 30만 어절 규모로 선별한 다음, 김혜영(2009a)과 동일한 방법<sup>3)</sup>으로 형태 분석한 것이다. 그 텍스트 목록은 부록

1) 김혜영(2009a)의 국어 비번역문 코퍼스는 21세기 세종계획의 형태 분석 코퍼스 가운데 1990년대 이후의 출판 서적 텍스트 파일을 대상으로 하여 번역문 코퍼스와 분야별 균형을 맞추어 100만 어절의 규모로 재구성한 것으로, 이 가운데 문학 텍스트가 30만 어절로 구성되어 있다(4-5). 연구 대상 텍스트의 목록은 김혜영(2009a 285)을 참고하기 바란다.

2) 본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2009)을 참고하기 바란다.

3) 비번역문 코퍼스가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형태 분석 코퍼스를 가져온 것으로, 21세기 세종계획에서 형태 분석 코퍼스를 구축한 것과 같은 기준과 방법을 사용하였다. 김혜영(2009a 4-6) 참조.

에 제시하였다.

김혜영(2009a)에서 영한 번역문을 중심으로 단순화를 비롯한 국어 번역문의 언어적 특성을 제시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그러한 특성이 영한 번역문에 제한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언어를 출발어로 하는 번역문에도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언어 조합 역시 번역문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가운데 하나이므로, 김혜영(2009a, 2009c)에서 밝힌 국어 번역문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언어를 출발어로 하는 번역문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불한 번역문의 단순화 실현 양상을 살피고, 형태별 빈도에 근거하여 비번역문 및 영한 번역문과 비교되는 불한 번역문의 어휘적 특성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 2. 번역 보편소와 단순화

번역 보편소란 “오리지널 텍스트보다 번역 텍스트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으로, 번역 과정에 어떤 언어조합(language pairs)이 사용되든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특징(정호정 117 재인용)”이다. 즉, 한 언어의 다른 언어에 대한 간섭의 결과라기보다는 두 언어 간 중재 과정의 필연적인 부산물로 간주되는 언어적 특성(안동환 63)이라 할 수 있다.

체스터만(Chesterman)은 번역 보편소 후보들을 크게 S-보편소와 T-보편소로 분류하였다(Denturck 2). S-보편소는 원문(ST)과 대조되는 번역문의 특성인 반면, T-보편소는 비번역문과 대조되는 번역문의 특성이다. 코퍼스 이전의 전통적 연구에서 단순화는 번역문이 원문보다 어휘적, 통사적, 문체적으로 단순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으로서, S-보편소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라비오사(Laviosa-Braithwaite 1996) 이후 최근의 비교 코퍼스를 이용한 보편소 연구에서 단순화는 T-보편소, 즉 원문을 배제한, 비번역문과의 비교·대조에서 나타나는 번역문의 특성으로 간주된다. 라비오사(2002)는 영어 비교 코퍼스를 대상으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사용된 어휘 범위가 좁고, 정보량이 낮으며, 문장 길이가 짧다는 세 가지 특성으로 단순화를 증명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편소의 존재 여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동안 보편

소로 논의되어 온 번역문의 특성들에 대해 법칙(laws)이나 규범(norms)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김혜영 2009c 116). 단순화에 대해서도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비교 코퍼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예외적인 현상들이 보고되었다. 코파스 패스터 외(Corpas Pastor, G., Mitkov, R., Afzal, N., & Pekar, V. 2008)는 스페인어 비교 코퍼스를 대상으로 문장 길이에서 단순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비전문적인 번역자가 생산한 번역문도 단순화의 특성을 보이지 않음을 밝혔다. 초보 번역자의 번역문에 단순화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단순화는 보편소가 아니라, 번역 규범의 학습에 따른 특성일 가능성이 높다.

김혜영(2009c 114)은 국어 비교 코퍼스를 대상으로 단순화가 텍스트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남을 연구하였다. 그는 문학 텍스트와 일반교양 텍스트의 경우 문장 길이에서 단순화가 발생하지 않고, 전문 텍스트에서는 어휘적 다양성에서 단순화가 발생하지 않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유형의 텍스트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정보량의 단순화뿐임을 제시하였다. 코파스 패스터 외의 연구에서 비전문적인 번역자가 생산한 번역문에는 단순화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김혜영(2009c)에서 전문 텍스트 유형의 번역문이 어휘적 다양성의 단순화를 보이지 않은 이유 역시 번역자의 숙련도에서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국어 비교 코퍼스에서 전문 텍스트 유형의 번역문에는 전문 번역사가 아닌, 해당 학술 분야의 전문 학술인이 번역한 텍스트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sup>4)</sup>.

이렇듯 언어 조합 및 텍스트 유형, 번역자의 숙련도 등 여러 변인에 따라 단순화가 달리 실현되므로, 단순화를 보편소, 즉 번역 특징적인 특성이라 하기는 어렵다. 예외를 설명하기에 더 우월다는 점에서 보편소 대신 투리(Toury)의 법칙(laws)이나 체스터만의 규범(norms)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든, 다른 번역 요소에 의한 간섭(interference)<sup>5)</sup> 현상으로 설명하든, 단순화가 번역문에서 발견되는 특성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분명히 연구 가치는 있을 것이다. 투리가 강조

4) 물론,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번역자의 숙련도만 달리 한 비교 코퍼스를 구축하여 토론 대 타입 비율이나 어휘 밀도 등을 비교하여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5) 여기서는 ‘간섭’의 의미를 출발어의 영향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여러 번역 요소들의 영향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한 바와 같이<sup>6)</sup>, 요는 보편소가 존재하느냐, 단순화가 보편소냐 아니냐가 아니라, 많은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연구를 통해 그러한 특성이 어떠한 조건에서 나타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일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번역의 본질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김혜영(2009a 134)은 명시화(explicitation)와 규범화(normalization)가 어휘의 단순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구문의 획일화와 의미의 중립화에 기인하여 특정 어휘가 많이 쓰임으로써 어휘의 다양성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원문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명시화의 과정에서 접속사, 수식어와 같은 기능 요소들을 첨가하면서 의미어보다 기능어의 비율이 높아져 정보성이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도착어의 규범에 맞게 더 읽기 쉬운 텍스트로 만드는 규범화의 과정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어휘보다는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선택함으로써 어휘적 다양성이 낮게 나타나며, 문장 길이 또한 짧아진다.”(134)

즉, 번역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의 양적 특성은 단순화를 드러내지만, 그러한 결과에는 출발어 및 도착어의 언어 규범과 담화 관습, 번역자의 번역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김혜영(2009a, 2009c)이 제시한 국어 번역문의 단순화 특성이 영한 번역문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출발어로 하는 번역문에도 유지되는 특성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 3. 불한 번역문의 단순화

김혜영(2009a)은 영한 번역문을 대상으로 라비오사(2002)가 제시한 단순화의 세 요소, 즉 정보량, 어휘적 다양성, 문장 길이에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단순한 경향을 보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혜영(2009c)은 그동안 보편소로

6) “the whole question of translation universals is not one of existence but one of explanatory power”(29).

논의되어 온 단순화가 텍스트 유형에 따라 달리 실현됨을 보임으로써, 각 출발 어별로 텍스트 유형 및 장르에 따른 번역문의 언어적 특성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단순화의 세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3.1. 문장 길이

문장 길이<sup>7)</sup>에 대해서는 라비오사(2002)가 영어 비교 코퍼스의 설화 작품에서는 번역문이 문장 길이의 단순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며(안동환 87), 김혜영(2009a 83)도 영한 번역문 가운데 문학 텍스트 유형은 문장 길이의 단순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불한 번역문의 문학 텍스트 유형은 어떠한가?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의 문장 길이를 김혜영(2009a 83)이 제시한 비번역문 문학 텍스트 및 영한 번역문 문학 텍스트의 문장 길이와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문장 길이 비교

	비번역문	영한 번역문	불한 번역문
전체 어절 수	301,893	301,676	301,937
문장 수	31,525	28,118	29,673
문장 당 평균 어절 수	9.576	10.729	10.175

위 표를 보면, 문학 텍스트 유형은 영한 번역문뿐 아니라 불한 번역문 역시 비번역문보다 문장 당 평균 어절 수가 더 많아 문장 길이가 더 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문학 텍스트 유형은 번역문이 문장 길이의 단순화 특성을 띠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3.2. 정보량

정보량의 단순화는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기능어 대비 의미어의 비율이

7) 문장의 길이는 각 문장이 포함하는 어절 수로 측정된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김혜영(2009c 114)은 텍스트 유형에 관계없이 영한 번역문에 나타나는 단순화는 정보량의 단순화뿐이라고 보고하였다. 정보량의 단순화가 텍스트 유형뿐 아니라 출발어와도 무관한 잠재적 보편소에서 기인한다면 불한 번역문 역시 정보량의 단순화 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비번역문, 영한 번역문, 불한 번역문을 대상으로 추출한 품사별 빈도수를 통해 각각의 텍스트에서 의미어와 기능어의 비율을 비교해 보겠다. 아래 표에서 비번역문과 영한 번역문의 통계 자료는 김혜영(2009c 105-6)에서 제시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표2> 품사별 빈도 비교<sup>8)</sup>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번역문		영한번역문		불한번역문	
			출현 횟수	상대 빈도	출현 횟수	상대 빈도	출현 횟수	상대 빈도
체언	명사	일반명사	123,741	40.988	121,186	40.171	123,151	40.787
		고유명사	6,425	2.128	9,391	3.113	8,246	2.731
		의존명사	17,809	5.899	18,634	6.177	16,549	5.481
	대명사	대명사	22,183	7.348	23,303	7.725	23,253	7.701
	수사	수사	1,719	0.569	1,417	0.470	1,354	0.448
		합계	171,877	56.933	173,931	57.655	172,553	57.149
용언	동사	동사	66,763	22.115	60,569	20.078	59,568	19.729
	형용사	형용사	15,336	5.080	14,174	4.698	14,265	4.725
	보조용언	보조용언	17,735	5.875	18,476	6.124	17,852	5.912
	지정사	부정지정사	1,649	0.546	1,119	0.371	873	0.289
			합계	101,483	33.616	94,338	31.271	92,558
수식언	관형사	관형사	10,109	3.349	12,114	4.016	12,244	4.055
	부사	일반부사	21,613	7.159	20,396	6.761	21,520	7.127
		접속부사	3,022	1.001	3,922	1.300	4,058	1.344
			합계	34,744	11.509	36,432	12.077	37,821
독립언	감탄사	감탄사	1,140	0.378	864	0.286	1,373	0.455

8) 표의 분류 체계는 21세기 세종계획 형태 분석 코퍼스의 체계를 따른 것이다. 다만, 긍정 지정사로 분류된 ‘.이다’는 본고에서 논의상 편의를 위해 학교문법을 따라 서술 격조사로 분류하였다. 절대빈도는 코퍼스에서 관찰되는 각 유형의 출현횟수를 나타내며, 상대빈도는 전체 어절 수에서 각 유형의 출현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표기한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된 ‘출현횟수’는 절대빈도를 가리킨다.

관계언	격조사	주격조사	19,400	6.426	18,480	6.126	18,594	6.158
		보격조사	1,655	0.548	1,320	0.438	787	0.261
		관형격조사	12,262	4.062	12,540	4.157	12,681	4.200
		목적격조사	25,296	8.379	25,289	8.383	26,341	8.724
		부사격조사	25,817	8.552	29,164	9.667	28,571	9.463
		호격조사	110	0.036	150	0.050	201	0.067
		인용격조사	163	0.054	464	0.154	476	0.158
		서술격조사	12,551	4.157	11,387	3.775	10,598	3.510
	합계	97,254	32.214	98,794	32.750	98,249	32.540	
	보조사	보조사	31,075	10.293	32,420	10.747	31,505	10.434
접속조사	접속조사	2,626	0.870	2,853	0.946	2,560	0.848	
합계		130,955	43.377	134,067	44.443	132,314	43.822	
의존 형태	어미	선어말어미	29,505	9.773	27,921	9.255	28,523	9.447
		종결어미	33,052	10.948	29,408	9.748	31,632	10.476
		연결어미	56,764	18.803	53,273	17.659	50,653	16.776
		명사형전성 어미	3,220	1.067	3,809	1.263	3,237	1.072
		관형형전성 어미	38,721	12.826	39,240	13.007	38,914	12.888
		합계	161,262	53.417	153,651	50.932	152,959	50.659
	접사	체언접두사	504	0.167	505	0.167	518	0.172
		명사파생접 미사	7,152	2.369	9,925	3.290	10,798	3.576
		동사파생접 미사	10,139	3.358	12,442	4.124	12,643	4.187
		형용사파생 접미사	7,509	2.487	7,350	2.436	8,394	2.780
		합계	25,304	8.382	30,222	10.018	32,353	10.715
	전체 어절 수		301,893		301,676		301,937	

서정수(1996 127-128)의 범주 체계에 의하면, 체언, 용언, 수식언(관형사와 일반 부사), 감탄사는 의미어에, 접속부사, 조사, 어미, 접사는 기능어에 속한다. 위 표에 제시된 형태별 빈도를 의미어와 기능어로 재분류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t;표3&gt; 의미어와 기능어의 비율 비교

	범주	비번역문	영한 번역문	불한 번역문
의미어	체언	171,877	173,931	172,553
	용언	101,483	94,338	92,558
	수식언 <sup>9)</sup>	31,722	32,510	33,763
	감탄사	1,140	864	1,373
	합계	306,222	301,643	300,247
기능어	접속부사	3,022	3,922	4,058
	조사	130,955	134,067	132,314
	어미	161,262	153,651	152,959
	접사	25,304	30,222	32,353
	합계	320,543	321,862	321,684
합계		626,765	623,505	621,931
어휘 밀도(%)		48.858	48.379	48.277

기대한 것과 같이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 역시 영한 번역 문학 텍스트와 유사한 어휘밀도 수치를 보이며 비번역문의 어휘밀도보다 낮다. 다시 말해, 불한 번역문 역시 영한 번역문과 마찬가지로 비번역문보다 기능어 대비 의미어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므로, 정보량의 단순화는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에도 유효한 특성이라 하겠다.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기능어 대비 의미어의 비율이 낮다고 해서 모든 의미어가 비번역문보다 번역문에 더 적게 쓰인 것은 아니다. 감탄사는 절대적인 출현횟수 자체가 적으므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우나, 체언과 수식언의 비율이 비번역문보다 번역문이 더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수식언의 비율은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뿐만 아니라 영한 번역문보다도 높게 나타난다.

수식언의 비율이 비번역문보다 번역문에서 더 높게<sup>10)</sup> 나타나는 것은 수식언이 갖는 기능어적 성격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수식언은 자립하여

9) 접속부사 제외. 관형사와 일반부사만 포함.

10) 수식언 중에서도 관형사의 비율이 비번역문보다 높다.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피수식언에 기대어 피수식언의 의미를 한정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어 중에서도 기능어적 성격을 지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 원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려는 명시화의 과정에서 수식언을 삽입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병렬 코퍼스가 필요한데, 이는 본고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친다.

모든 기능어가 비번역문보다 번역문에 더 많이 쓰인 것은 아니지만, 기능어 가운데 어미만큼은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더 적게 쓰였다. 이는 어미가 결합하는 용언이 비번역문보다 번역문에 더 적게 쓰인 데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단순히 출현횟수만으로 비번역문보다 번역문에서 어미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번역문과 비번역문 각각 어미의 출현 환경, 즉 어미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서술어 대비 어미의 비율을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3>의 용언에는 어근에 동사 파생 접미사와 형용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 동사와 파생 형용사 및, 긍정지정사 또는 서술격 조사로 불리우는 ‘-이다’가 제외되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어미의 출현 환경 대비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서술어 대비 어미의 비율

범주	비번역문	영한 번역문	불한 번역문
용언	101,483	94,338	92,558
동사파생접미사	10,139	12,442	12,643
형용사파생접미사	7,509	7,350	8,394
서술격 조사	12,551	11,387	10,598
합계(서술어 전체)	161,262	125,517	124,193
어미	161,262	153,651	152,959
서술어 대비 어미의 비율(%)	122.463	122.414	123.162

위 <표4>에서 어미가 결합하는 환경인 서술어 대비 어미의 비율을 보면, 번역문은 비번역문과 비슷하거나 비번역문보다 조금 더 높다.

요컨대, 의미어와 기능어의 세부 요소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문학 텍스트 유형은 영한 번역문과 불한 번역문 모두 비번역문보다 기능어 대비 의미어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나서 정보량의 단순화 특성을 지닌다.

### 3.3. 어휘적 다양성

어휘적 다양성의 단순화는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어휘가 다양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토큰 대 타입 비율<sup>11)</sup>이다. 김혜영(2009c 113)은 영한 번역문에서 문학 텍스트와 일반교양 텍스트는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토큰 대 타입 비율이 낮아 어휘적 다양성의 단순화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고의 불한 번역문 코퍼스 자료는 문학 텍스트이므로 어휘적 다양성의 단순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비번역문, 영한 번역문, 불한 번역문 각각 문학 텍스트 유형을 대상으로 주요 품사의 토큰 대 타입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에서 어휘적 다양성의 단순화가 실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표5> 토큰 대 타입 비율 비교<sup>12)</sup>

품사	비번역문			영한 번역문			불한 번역문		
	토큰	타입	토큰 대 타입 비율(%)	토큰	타입	토큰 대 타입 비율(%)	토큰	타입	토큰 대 타입 비율(%)
일반명사	123,741	12,600	10.183	121,186	11,115	9.172	123,151	11,613	9.430

11) 타입은 어휘 항목(lexical item)을 가리키고, 토큰은 그것이 개별적으로 실현된 횟수를 의미한다.

12) 김혜영(2009a, 2009c)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장 길이와 어휘밀도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 따라서 비번역문과 번역문의 문장 길이, 어휘 밀도를 비교할 때는 텍스트 유형을 동일하게 구성해야 한다. 반면에, 토큰 대 타입 비율의 수치는 텍스트 유형보다 전체 어절 수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비번역문과 번역문의 토큰 대 타입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코퍼스의 전체 어절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김혜영(2009a 32-33)에서 100만 어절 규모의 비번역문은 일반명사, 동사, 일반부사, 형용사의 토큰 대 타입 비율이 각각 5.0%, 1.5%, 3.2%, 1.5%이고 100만 어절 규모의 영한 번역문은 이들 품사의 토큰 대 타입 비율이 각각 5.0%, 1.5%, 2.7%, 1.3%이지만, <표5>에 제시한 30만 어절 규모의 코퍼스는 각 품사별로 토큰 대 타입 비율이 100만 어절 규모 코퍼스의 토큰 대 타입 비율 값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토큰 대 타입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코퍼스의 어절 규모를 비슷하게 유지해야 그 비교 결과에 유의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동사	66,763	2,232	3.343	60,569	2,077	3.429	59,568	2,157	3.621
일반부사	21,613	1,440	6.663	20,396	1,216	5.962	21,520	1,250	5.809
형용사	15,336	520	3.391	14,174	464	3.274	14,265	478	3.351
합계	227,453	16,792	7.383	216,325	14,893	6.885	218,504	15,498	7.093

위 표에서 비번역문과 영한 번역문의 통계 자료는 김혜영(2009c 112-13)에서 제시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위 표를 보면 문학 텍스트는 영한 번역문뿐 아니라 불한 번역문도 비번역문보다 토큰 대 타입 비율이 더 낮다. 토큰 대 타입 비율이 더 낮다는 것은 사용된 어휘 항목의 수가 더 적다는 것으로, 다양한 어휘가 쓰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문학 텍스트는 영한 번역문과 불한 번역문 모두 어휘적 다양성의 단순화 특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다만, 위 표에서 불한 번역문이 영한 번역문보다 토큰 대 타입 비율이 다소 높으므로, 영한 번역문에 비해 불한 번역문이 상대적으로 비번역문에 더 가까운 어휘적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단순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영한 번역 문학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는 정보량과 어휘적 다양성에서 단순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다만,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는 문장 길이와 토큰 대 타입 비율이 영한 번역 문학 텍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번역 문학 텍스트에 더 가깝다. 다음 장에서는 비번역문 및 영한 번역문의 문학 텍스트와 대조되는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의 어휘적 특성을 품사별로 좀 더 자세히 고찰하도록 하겠다.

#### 4. 불한 번역문의 어휘적 특성

문학 텍스트 유형에서 불한 번역문은 단순화 특성이 영한 번역문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영한 번역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번역문에 더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코퍼스의 형태별 빈도 통계를 토대로, 비번역문 및 영한 번역문의 문학 텍스트와 비교하여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에 나타나는 어

회적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 4.1. 체언

3.2의 <표2>에서 영한 번역 문학 텍스트는 비번역 문학 텍스트에 비해 일반명사의 비율은 낮고 고유명사와 의존명사, 대명사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는 영한 번역 문학 텍스트와 달리 의존명사의 비율이 비번역문보다 더 낮다. 다음 표를 통해 의존명사의 형태별 빈도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다.

<표6> 의존명사의 형태별 빈도 비교

형태	비번역 문학		영한 번역 문학		불한 번역 문학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것/거	7,089	2.348	7,275	2.412	6,480	2.146
수	1,990	0.659	2,301	0.763	1,868	0.619
때문	674	0.223	929	0.308	668	0.221
합계	9,753	3.231	10,505	3.482	9,016	2.986
의존명사전체	17,809	5.899	18,634	6.177	16,549	5.481

위 표는 의존명사 가운데 고빈도 형태의 빈도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영한 번역문은 의존명사 고빈도 형태들이 모두 비번역문보다 더 많이 쓰였지만, 불한 번역문은 ‘때문’의 빈도가 비번역문과 비슷할 뿐, 의존명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거’와 ‘수’의 빈도는 영한 번역문뿐 아니라 비번역문보다 더 낮다. 김혜영(2009a 41-45, 113)은 영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것/거’, ‘수’, ‘때문’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영한 번역문에 ‘-ㄴ/르 것이다’, ‘-수 있/없다’, ‘-기 때문’의 상투적 표현이 많이 쓰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듯이 불한 번역문은 영한 번역문과 달리 이들 표현이 많이 쓰이지 않는다.

&lt;표7&gt; 의존명사를 포함한 구문의 빈도 비교

형태	비번역 문학		영한 번역 문학		불한 번역 문학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ㄴ/르 것이다	2,055	0.681	2,768	0.918	2,216	0.734
-수 있/없다	1,423	0.471	1,625	0.539	1,325	0.439
-기 때문	378	0.125	636	0.211	371	0.123

위 표를 보면, 영한 번역문은 이들 구문의 빈도가 비번역문보다 높지만, 불한 번역문은 비번역문과 비슷한 수준이다. 즉, 이들 상투적 표현은 모든 국어 번역문에 공통된 특징이 아니라 영한 번역문에 국한된 특징이어서, 불한 번역문은 영한 번역문과 달리 의존명사의 빈도가 비번역문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의존명사의 빈도와 관련한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의 특징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의존명사 ‘씨’가 많이 쓰인다는 점이다. 의존명사 ‘씨’의 출현횟수를 비교해 보면, 비번역 문학 텍스트는 89회, 영한 번역 문학 텍스트는 113회,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는 283회로, 불한 번역문이 영한 번역문보다 2.5배, 비번역문 보다는 3배나 더 높다. ‘씨’는 사람 이름과 호응하여 쓰이는 호칭의 일종으로, ‘M. Dupont’ 또는 ‘Monsieur Dupont’ 등이 ‘뒤퐁 씨’와 같이 번역되는 것을 고려할 때, ‘씨’가 불한 번역문에 많이 쓰이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코퍼스에서 사람 이름과 ‘씨’의 호응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불한 번역문이 영한 번역문이나 비번역문에 비해 사람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씨’가 많이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씨’ 대신 다른 호칭어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담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투적으로 ‘씨’를 붙인 것인지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뒤에 살펴볼 존칭 대명사나 존칭 조사의 쓰임과 더불어, 잠정적으로 불한 번역문이 지니는 격식성의 한 양상으로 파악한다.

대명사의 쓰임에서 나타나는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의 특징은 비번역문보다 1인칭 대명사의 쓰임이 적은 대신 2인칭 대명사와 3인칭 대명사 ‘그’가 많이 쓰인다는 점이다.

&lt;표8&gt; 대명사의 형태별 빈도 비교

형태	비번역 문학		영한 번역 문학		불한 번역 문학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나/내	8,841	2.929	6,004	1.990	5,803	1.922
그녀	3,388	1.122	2,917	0.967	2,676	0.886
그	2,230	0.739	6,127	2.031	5,274	1.747
우리	1,431	0.474	1,299	0.431	1,632	0.541
그것/그거	1,106	0.366	1,341	0.445	1,060	0.351
너/네/니	820	0.272	428	0.142	662	0.219
당신	347	0.115	791	0.262	841	0.279

위 표를 보면,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는 2인칭 존칭 대명사 ‘당신’과 3인칭 대명사 ‘그’의 빈도가 비번역문보다 2.4배가량 높게 나타난다. 영한 번역문 역시 ‘당신’과 ‘그’의 빈도가 높다. 다만, 영한 번역문은 2인칭 대명사에서 존칭이 비번역문보다 2배 많이 쓰인 데 반해, 평칭은 비번역문의 절반 수준이라서 2인칭 대명사 전체의 빈도는 비번역문과 비슷하지만, 불한 번역문은 2인칭 존칭 대명사와 더불어 2인칭 대명사 전체 빈도까지 높다.

## 4.2. 용언

용언의 쓰임은 불한 번역문과 영한 번역문이 대체로 유사하다. 둘 다 비번역문보다 동사, 형용사, 부정 지정사의 빈도는 낮고, 보조용언의 빈도는 높다. 다만, 불한 번역문은 부정 지정사 ‘아니다’의 빈도가 특히 낮고, 보조용언의 빈도가 영한 번역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번역문에 더 가깝다.

3.2의 <표2>에서 보듯이, 부정 지정사 ‘아니다’의 빈도는 불한 번역문이 비번역문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불한 번역문은 ‘아니다’ 외에도 비번역문에 비해 대체로 부정어의 쓰임이 적은 편이다.

## &lt;표9&gt; 부정 표현의 빈도 비교

유형	형태	비번역 문학		영한 번역 문학		불한 번역 문학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의지	안/아니	838	0.278	318	0.105	305	0.101
	-지 않다	3,326	1.102	3,110	1.031	2,732	0.905
	합계	4,164	1.379	3,428	1.136	3,037	1.006
능력	못	299	0.099	171	0.057	205	0.068
	-지 못하다	698	0.231	689	0.228	694	0.230
	합계	997	0.330	860	0.285	899	0.298
합계		5,161	1.710	4,288	1.421	3,936	1.304

위 표를 보면, 문학 텍스트 유형은 영한 번역문과 불한 번역문 모두 능력 부정 보다는 의지 부정의 빈도가 더 낮고, 장형 부정보다는 단형 부정의 빈도가 더 낮다<sup>13)</sup>. 불한 번역문은 부정어 가운데서도 의지 부정의 빈도가 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능력 부정은 영한 번역문과 불한 번역문 모두 비번역문보다 그 빈도가 낮긴 하지만 유의미성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그 차이가 작은 반면, 의지 부정은 능력 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번역문의 빈도가 더 낮고, 특히 불한 번역문이 더 낮다. 영어와 불어 문학 텍스트 자체가 국어 문학 텍스트에 비해 부정문이 더 적게 쓰인 것인지, 아니면 번역 과정에서 ‘모르다’나 ‘없다’를 활용한 어휘적 부정 표현을 사용<sup>14)</sup>하거나 동일한 의미의 긍정문으로 통사적 변형을 가한 것<sup>15)</sup>

13) 김혜영(2009a 31, 110-113)의 균형 코퍼스에서는 영한 번역문과 비번역문이 ‘아니다’를 포함하여 부정 표현의 빈도 차이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영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능력 부정의 쓰임이 더 적게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핀 문학 텍스트 코퍼스에서는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의지 부정의 쓰임이 더 적고, ‘아니다’를 포함하여 부정 표현 전체의 빈도도 더 낮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부정 표현의 빈도가 낮고 그 중에서도 의지 부정이 특히 더 적게 쓰인다는 것은 문학 텍스트 유형에 한정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4) 예를 들면, 능력 부정의 경우, “I can’t swim.”을 “나 수영 못 해.”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나 수영할 줄 몰라.” 혹은 “나 수영할 수 없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의지 부정의 경우에는, “I didn’t know who he is”를 “나는 그가 누군지 몰랐다.”나 “그의 정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로, “I don’t have a pen.”을 “펜이 없어.”로 번역할 수 있다.

인지는 원문과의 대조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부정 지정사 외 나머지 동사 및 형용사, 보조 용언의 각 형태별 빈도에서는 불한 번역문과 영한 번역문에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영한 번역 문학 텍스트와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 모두 동사에서는 비번역문에 비해 ‘있다, 되다, 대하다, 위하다, 만들다’ 등의 빈도가 높고, 보조 용언에서는 ‘있다’의 빈도가 높은 반면<sup>16)</sup>, ‘지다, 앓다’의 빈도가 낮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보조 용언 ‘지다’의 빈도이다. 보조 용언 ‘지다’는 ‘-아/어지다’의 형태로 통사적 피동에 쓰이는데, 김혜영(2009a 54)은 영한 번역문 가운데서도 사실적 텍스트 유형에서 ‘지다’의 빈도가 높다고 하였다. 즉, 문학 텍스트의 영한 번역문은 ‘지다’의 빈도가 비번역문보다 낮았는데, 이는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 역시 마찬가지다. 통사적 피동의 다른 형태인 ‘-게 되다’ 구조가 문학 텍스트의 번역문에도 많이 쓰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피동형은 대표적인 번역투로 논의되어 왔고 번역문에 피동형이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나, 텍스트 유형 및 피동 형태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어지다’ 형의 피동문은 영한 번역문과 불한 번역문 모두 문학 텍스트에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

### 4.3. 수식언

수식언 중에서는 관형사가 영한 번역 문학 텍스트뿐 아니라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에도 많이 쓰인다. 관형사 중에서도 비번역문에 비해 번역문에 더 많이 쓰이는 형태는 지시 관형사 ‘그’와 ‘이’이다. 아래에 고빈도 관형사 형태의 빈도를 제시하였다.

- 
- 15) 이를테면, “I don’t like to leave here.”를 담화 상황에 따라 “여기에 남고 싶어/여기 계속 있고 싶어/여기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등으로 번역하는 식이다.
- 16) 이들 용언이 비번역문보다 영한 번역문에 많이 쓰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혜영(2009a 46-54)에서 제시한 바, 영어와 불어의 언어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불한 번역문도 영한 번역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lt;표10&gt; 관형사의 형태별 빈도 비교

형태	비번역 문학		영한 번역 문학		불한 번역 문학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그	3,147	1.042	3,572	1.184	3,560	1.179
한	1,355	0.449	1,175	0.389	1,209	0.400
이	742	0.246	1,420	0.471	1,578	0.523
관형사 전체	10,109	3.349	12,114	4.016	12,244	4.055

위 표를 보면 영한 번역문과 불한 번역문 모두 비번역문에 비해 관형사 ‘그’와 ‘이’의 빈도가 높다. 특히 관형사 ‘이’의 빈도는 번역문이 비번역문의 2배에 달한다. 관형사 전체의 출현횟수를 비교하면 영한 번역문과 불한 번역문 모두 비번역문보다 2,000회 정도 더 높는데, 이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관형사 ‘그’와 ‘이’의 증가분이다. 영한 번역문은 비번역문보다 ‘그’와 ‘이’의 출현횟수가 1,103회 더 많고, 불한 번역문은 비번역문보다 1,249회 더 많다.

3.2에서 본고는 의미어 가운데 수식어의 비율이 비번역문보다 번역문에서 더 높게 나타난 사실에 대해 수식언어 갖는 기능어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수식어 중 일반부사는 번역문의 빈도가 더 낮고, 관형사의 빈도만 번역문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그 주된 원인은 바로 지시 관형사 ‘그’와 ‘이’이다. 지시 관형사가 직시 및 지시의 결속 관계 기능을 갖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번역문에 많이 쓰이는 현상은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기능어의 비율이 높다는 ‘정보량의 단순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영어와 불어의 관사를 한국어로 번역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부사의 쓰임에서 나타나는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의 특징은 부정 부사가 적게 쓰이고, 비교의 정도 부사와 시간 부사가 많이 쓰인다는 것이다. 아래 표에 일반부사의 고빈도 형태 중 비번역문과 번역문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형태들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lt;표11&gt; 일반 부사의 형태별 빈도 비교

유형	형태	비번역 문학		영한 번역 문학		불한 번역 문학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부정	안/아니	838	0.278	318	0.105	305	0.101

	못	299	0.099	171	0.057	205	0.068
	합계	4,164	1.379	3,428	1.136	3,037	1.006
정도	더	533	0.177	760	0.252	759	0.251
	아주	227	0.752	360	0.119	434	0.144
	너무	285	0.094	289	0.096	290	0.096
	가장	155	0.051	276	0.091	283	0.094
	매우	43	0.014	166	0.055	121	0.040
	합계	1,243	0.412	1,851	0.614	1,887	0.625
시간	다시	537	0.178	558	0.185	731	0.242
	이제	259	0.086	206	0.068	272	0.090
	곧	124	0.041	178	0.059	252	0.083
	아직	209	0.069	261	0.087	228	0.076
	갑자기	175	0.058	194	0.064	219	0.073
	마침내	55	0.018	110	0.036	167	0.055
	이미	135	0.045	193	0.064	158	0.052
	지금	165	0.055	218	0.072	154	0.051
	합계	1,659	0.550	1,918	0.636	2,181	0.722
일반부사 전체	21,613	7.159	20,396	6.761	21,520	7.127	

위 표를 보면 문학 텍스트 유형에서 영한 번역문과 불한 번역문 모두 비번역문보다 부정 부사의 빈도는 낮고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도 부사 및 시간 부사의 빈도는 높다. 특히 영한 번역문보다 불한 번역문이 그 차이의 정도가 더 크다. 부정 부사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하였거니와, 위 표에 제시한 정도 부사와 시간 부사가 번역문에 많이 쓰이는 것은 출발어 텍스트의 비교 구문 및 시상 표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다시 말해 출발어의 간섭에 기인한 특징으로 생각된다.

접속 부사는 학교 문법에서 부사로 분류하지만 일반 부사와 달리 기능어에 속한다. <표2>에서 보았듯이 다른 기능어들과 마찬가지로 접속 부사는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그 빈도가 높다. 접속 부사 가운데 고빈도 형태의 빈도를 아래의 표에 비교하여 제시했다.

&lt;표12&gt; 접속 부사의 형태별 빈도 비교

형태	비번역 문학		영한 번역 문학		불한 번역 문학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그리고	665	0.220	1,064	0.353	1,091	0.361
그러나	570	0.189	1,086	0.360	654	0.217
하지만	306	0.101	457	0.151	511	0.169
그래서	271	0.090	296	0.098	338	0.112
그런데	342	0.113	170	0.056	298	0.099
그러자	34	0.011	78	0.026	196	0.065
그렇지만	49	0.016	56	0.019	187	0.062
접속부사 전체	3,022	1.001	3,922	1.300	4,058	1.344

위 표는 접속 부사를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의 고빈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불한 번역문은 영한 번역문과 마찬가지로 ‘그리고’가 많이 쓰이지만, 영한 번역문과 달리 ‘그러나’의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김혜영(2009a 89-91)에서 지적한 것처럼, 영한 번역문은 비번역문에 비해 전환 관계의 접속 부사 ‘그런데’의 빈도가 낮은 대신 역접 접속 부사의 빈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 불한 번역문은 역접 접속 부사가 많이 쓰이긴 했으나, 영한 번역문만큼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불한 번역문에서는 영한 번역문과 달리 역접 접속 부사의 쓰임이 특정 형태에 편중되지 않고 영한 번역문이나 비번역문에 비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영한 번역문은 ‘하지만’, ‘그렇지만’ 등의 다른 역접 접속 부사에 비해 ‘그러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 반해, 불한 번역문은 상대적으로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의 여러 형태들이 골고루 나타났다.

접속 부사의 쓰임에서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계기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자’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비번역문보다 거의 6배나 높은 수치이다. 일반 부사 가운데 시간 부사의 빈도가 높은 것이나, 계기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자’의 빈도가 높은 것은 불어에 시간 표현이 문법적으로 발달한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외에도 ‘그러더니’, ‘그러면서’, ‘그러다가’ 등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들이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에 많이 나타나는데, 본 연구의 30만 어절 규모의 코퍼스에서는 ‘그러자’를 제외하면 그 출현횟수가 100회 미만으로 적으므로 코퍼스의 규모를 좀 더 크게 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4.4. 관계언

조사의 쓰임과 관련한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의 특징은 존칭이 많이 쓰이고, 구어체가 적게 쓰인다는 것이다. 먼저 존칭 조사부터 비교해 보겠다.

<표13> 존칭 조사의 빈도 비교<sup>17)</sup>

격유형	분류	형태	비번역 문학		영한 번역 문학		불한 번역 문학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주격	평칭	이/가	19,207	99.205	18,695	99.083	18,353	98.954
	존칭	께서	154	0.795	173	0.917	194	1.046
	합계		19,361		18,868		18,547	
여격	평칭	에게	1,742	87.013	2,424	92.062	2,434	89.321
		한테	230	11.489	159	6.039	176	6.459
		합계	1,972	98.502	2,583	98.101	2,610	95.780
	존칭	께서	30	1.498	50	1.899	115	4.220
	합계		2,002		2,633		2,725	

평칭에 대해 존칭 형태가 따로 존재하는 격조사는 주격 조사와 여격 조사이다. 위 표를 보면 미약하긴 하지만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존칭 격조사가 더 많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한 번역문보다는 불한 번역문에서 존칭 격조사가 더 많이 쓰이며, 주격에 비해 여격에서 그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다음으로 구어체 조사를 비교해 보겠다.

17) 표에서 상대빈도는 해당 격조사의 출현횟수 합계에서 각 형태의 출현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lt;표14&gt; 구어체 조사의 빈도 비교

유형	분류	형태	비번역 문학		영한 번역 문학		불한 번역 문학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출현횟수	상대빈도
여격 조사 <sup>18)</sup>	문어체	에게	1,742	88.337	2,424	93.844	2,434	93.257
	구어체	한테	230	11.663	159	6.156	176	6.743
	합계		1,972		2,583		2,610	
공동격 조사	문어체	와/과	1,160	90.484	1,304	96.736	1,408	96.703
	구어체	하고	89	6.942	35	2.596	39	2.679
		랑	33	2.574	9	0.668	9	0.618
		합계	122	9.516	44	3.264	48	3.297
	합계		1,282		1,348		1,456	
접속 조사	문어체	와/과	2,186	98.513	2,355	99.158	2,233	99.421
	구어체	하고	28	1.262	8	0.337	3	0.134
		랑	5	0.225	12	0.515	10	0.445
		합계	33	1.487	20	0.842	13	0.579
	합계		2,219		2,375		2,246	

문어체에 대해 별도로 구어체 형태가 존재하는 조사는 여격 조사, 공동격 조사, 접속 조사 정도이다. 위 표를 보면, 접속 조사는 구어체 형태의 출현횟수가 워낙 적어 논외로 하더라도, 영한 번역문과 불한 번역문 모두 비번역문보다 구어체의 쓰임이 적다. 대화문에서 구어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는 번역 과정에서 대화문을 담화 맥락에 어울리는 생생한 구어체의 도착어로 표현해 내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구어체의 쓰임이 적은 것이나 의존 명사 ‘씨’와 대명사 ‘당신’ 및 존칭 어휘의 빈도가 높은 일련의 현상들은 번역문의 격식성으로 수렴된다.

18) 존칭 여격 조사 ‘께’는 문어와 구어 구분 없이 두루 쓰이므로 제외하였다.

## 5. 결론

이상으로 비번역문 및 영한 번역문과 비교하면서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비번역문과 비교할 때 불한 번역문은 단순화를 비롯하여, 대명사 ‘당신’과 존칭 조사의 빈도가 높고 구어체 조사의 빈도가 낮아 격식성을 띠는 점 등, 형태별 빈도에서 드러나는 어휘적 특성이 대체로 영한 번역문과 유사하다. 그러나 출발어가 다른 탓에 영한 번역문과 변별적인 특성 또한 가진다. 의존명사 ‘씨’, 시간 표현과 관련한 일반부사와 접속부사가 많이 쓰이는 점은 불한 번역문의 개별적 특성이다.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와 영한 번역 문학 텍스트에 공통된 특성들은 국어 번역문의 보편적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출발어가 같은 계통의 언어라는 점에서 기인한 특성도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공통된 특성들 중에는 문장 길이의 단순화가 나타나지 않는 점이나 부정 표현 및 ‘-아/어지다’ 형의 피동이 적게 쓰이는 것과 같이, 문학 텍스트 유형에 속하는 번역문이라는 점에서 공유하는 특성도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다양한 출발어에 대해 텍스트 유형별 번역문의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그 연구 결과가 모인다면, 국어 번역문의 보편적 특성을 찾고, 번역문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에 따른 특성들을 구별해 낼 수 있을 것이며, 번역문의 특성을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학 텍스트에서 영한 번역문과 불한 번역문 간의 어휘 특성은 코퍼스로 사용된 문학 작품의 주제, 배경, 등장인물 같은 작품의 특성 과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언어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교 코퍼스에 기반한 빈도 통계 중심의 연구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포착해 내지 못하고, 번역문의 어휘 및 구문 차원의 결과론적 기술에 치우친다는 단점이 있다. 본고 역시 불한 번역문에 대해 형태별 빈도에서 나타나는 어휘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 결과는 불한 번역에서 어떤 부분의 연구가 필요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 제공의 역할을 한다. 형태별 빈도에 따른 불한 번역문의 어휘적 특성을 통해, 대조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부정 표현 및 시간 표현과 관련한 통사론적 접근이 필요하며, 격식성과 관련한 일련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담화 화용론의 차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이들 구3

문의 번역 전략 및 방법까지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원문이 포함된 병렬 코퍼스가 전제되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약하며 결론을 갈음한다.

## 참고문헌

- 김혜영 (2009a) 『국어 번역 글쓰기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09b) 『국어 번역문과 번역 글쓰기』, 서울: 한국문화사.  
 ---- (2009c) 「텍스트 유형에 따른 번역 보편소의 실현 양상-국어 비교 코퍼스에 기반하여」, 『통번역교육연구』, 7(2): 103-120.
- 서정수 (1996)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안동환 옮김 (2008) 『코퍼스기반 번역학: 이론, 연구결과, 응용』, 서울: 동인.
- (Laviosa, Sara (2002)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ory, Findings, Applications*, Amsterdam & New York: Rodopi.)
- 이근희 (2005) 『영한번역에서의 ‘번역투’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08) 『번역의 이론과 실제(개정판)』, 서울: 한국문화사.
- 이영훈 (2001) 「불어⇔한국어 병렬 코퍼스 구축을 위한 제안」, 『한국불어불문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대회 초록집』, 193-197.
- (2009)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 연구계획 및 1차연도 연구성과」, 『번역비평』 3: 68-87.
- 정호정 (2008) 『제대로 된 통역·번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프랑스명작소설번역평가연구단 홈페이지. <http://www.tqa.or.kr/main/main.php>
- Chesterman, Andrew (2004) ‘Beyond the Particular’ in Anna Mauranen and Pekka Kujamäki (eds) *Translation Universals: Do they exist?*, Amsterdam: John Benjamins, 33-49.
- Cheong, Ho-Jeong (2004) *Translated Text Expansion and Contraction Phenomena: A Corpus-Based Study of Quantitative Target Text Changes as Reflective of Translator Medi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Hankook Univ. of Foreign Studies.

- Corpas Pastor, Ruslan Mitkov, Naveed Afzal, and Viktor Pekar (2008) 'Translation universals: do they exist? A corpus-based NLP study of convergence and simplification' in Proceedings of the 8th Conference of the AMTA, Waikiki, Hawaii, 21-25 October 2008, Retrieved December 21, 2009, from the Association for Machine Translation Web site: <http://www.mt-archive.info/AMTA-2008-Corpas.pdf>
- Denturck, Kathelijne (2009) 'Translation universals: the case of causal connectives in French and Dutch Translations -a corpus-based study' in Proceedings of the SLE 2009, Lisbonne 11-12 September, Retrieved December 21, 2009, from Universiteit Gent Web site: <http://www.francais.ugent.be/index.php?id=25&type=file>
- Laviosa-Braithwaite, Sara (1996) *The English Comparable Corpus (ECC): A Resource and a Methodology for the Empirical Study of Translatio.*, PhD. Thesis, Manchester: Centre for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Studies UMIST.
- Laviosa, Sara (2002)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ory, Findings, Applications*, Amsterdam & New York: Rodopi.
- Toury, Gideon. (2004) 'Probabilistic Explanations in Translation Studies' in Anna Mauranen and Pekka Kujamäki (eds) *Translation Universals: Do they exist*, Amsterdam: John Benjamins, 15-32.

## 부록: 분석 대상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 목록

저자	작품명	번역자	연도	출판사
그랑빌	인터넷에 들어간 대머리 원숭이	햇살과 나무꾼	1996	실천문학사
네르발	옥파비	이준섭	2007	아르테
단프랑크	이별	김응권	1993	해냄
로맹가리	연	이수열	1993	홍원
로맹가리외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김남주	1994	현대문학
뤽베송	그랑부르	이미정	1993	태일
마르그라트뒤라스	연인의 약속	명희진	1993	청맥
마르셀에메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	이세옥	2002	문학동네
메리메	마테오 팔코네	정장진	2007	두레
모파상	노끈	김경미	2008	책만드는세상
모파상	달빛	이형식	2002	정음
모파상	두 친구	이봉지	2002	문학과학지성사
모파상	메종 텔리에	정성국	1992	홍신문화사
모파상	목걸이	김경미	2008	책만드는집
모파상	미뉴에트	윤학로	1991	동아
모파상	미쓰 헤리엇	이형식	2002	정음
모파상	미친 여자	윤학로	1991	동아
모파상	보석	최복현	2001	글읽는세상
모파상	보호자	방곤	1999	서문
모파상	산장	한용택	2007	우물이있는집
모파상	시몽의 아빠	이봉지	2002	문학과학지성사
모파상	아버지	이정림	2007	범우사
모파상	올리브숲	이형식	2002	정음
모파상	의자 고치는 여자	배기열	1998	경희대학교출판국
모파상	질르 삼촌	김동현, 김사행	2006	문예
모파상	첫눈	이정림	1992	범우
모파상	포로	윤학로	1999	동아
모파상	후회	최내경	2007	대교비텔스만

베르코르	바다의 침묵	배기열	1998	경희대학교출판국
보브와르	아름다운 영상	윤태빈	1991	문조사
사르트르	벽	김희영	2005	문학과지성사
생텍쥐페리	어미니에게 사랑을	김진옥	1992	서연
샤토브리앙	르네	신광균	2003	새미
세르잔느골롱	앙젤리크의 왕(상)	김소영	1993	여울
알베르까뮈	손님	김화영	1994	책세상
알베르까뮈	적지와 왕국	김화영	1994	책세상
알베르까뮈, 장그르니에	편지	김용환	1991	예하
알퐁스 도데	꼬마 스파이	김명숙	2000	좋은생각
알퐁스 도데	나룻배	임해진	2000	청목
알퐁스 도데	노부부	권지현	2003	주변인의길
알퐁스 도데	당구	김사행	2006	문예
알퐁스 도데	두 주막집	최내경	2003	대교베텔스만
알퐁스 도데	마지막수업	김명숙	2000	좋은생각
알퐁스 도데	별	이원희	2004	소담
알퐁스 도데	빅시우의 손가방	김사행, 이춘복	2006	문예
알퐁스 도데	산문으로 쓴 환상시	최복현	2008	인디북
알퐁스 도데	상기네르의 등대	정봉구	2002	범우사
알퐁스 도데	새 집을 마련하다	김수영	1993	이가
알퐁스 도데	세미앙트 호의 최후	권지현	2003	주변인의길
알퐁스 도데	스갱씨의 암산양	배기열	1998	경희대학교출판국
알퐁스 도데	시인 미스트랄	박해남	1996	맑은소리
알퐁스 도데	아를르의 여인	최복현	2001	글읽는세상
알퐁스 도데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	최애리	2004	현대문학
앙뜨완블롱댕	하느님의 자식들	조항덕	1994	장원
앙리구고	사랑과 지혜의 나무2	김인심	1993	사계절
에르베바쟁	손아귀에 든 독사	정연풍	1993	장원
자크아탈리	영원한 삶	박동혁	1993	다섯수레
플로베르	순박한 마음	김연권	1997	문학과지성사

[Abstract]

**A study on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French-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based on comparable corpus :  
Focused on the simplification and lexical characteristics**

Kim, Hyeyoung · Yi, Yeong-Houn  
Ko, Kyungeun · Kim, Tae-jun · Yi, Eunjung · Jo, Hyeran · Choi, Hyun-ah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French-Korean translated texts based on the Korean comparable corpus. This paper considers the concept of simplification in French-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by building the morph-tagged French-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corpus with three hundred thousand words and comparing it with Korean non-translated literary texts corpus, and analyzes the lexical characteristics of French-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compared with Korean non-translated literary texts and English-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The lexical characteristics of French-Korean translated literary texts found from frequency per morph in corpu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implification of information volume and lexical diversity appears.

Second, honorific words are used frequently, but spoken style is used with low frequency, so formality is appeared.

Third, negative expressions are used with low frequency.

Fourth, adverb and conjunction related with time are used frequently.

The first, the second, and the third characteristics are similar to those of English-Korean translated texts. But, the fourth is independent of English-Korean translated texts.

▶ Key Words: comparable corpus, translation universals, simplification, French-Korean translated text, frequency per morph

김혜영(제1저자)

고려대학교 번역과레토릭연구소 연구교수

cojump@empal.com

관심분야: 코퍼스 기반 번역학, 번역 글쓰기

이영훈(교신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erasme@korea.ac.kr

관심분야: 번역평가, 번역수사학

고경은(공동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과정

gogengi@naver.com

관심분야: Guillaume Apollinaire 시의 번역비평

김태준(공동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과정

june143@naver.com

관심분야: Claude-Gaspar Bachet de Méziriac의 De la Traduction 연구번역

이은정(공동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과정

dhkdrma@nate.com

관심분야: Jean Racine 희곡의 번역비평

조혜란(공동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과정

chiko83@nate.com

관심분야: Simone de Beauvoir의 Deuxième sexe의 번역과 수용

최현아(공동저자)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석사과정

luvjwh@naver.com

관심분야: Annie Ernaux 소설의 번역비평

논문투고일: 2010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0년 3월 02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09일